창원 의회 소식

제3호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 의회

CONTENTS

04_ 신 년 사
06_ 의 원 현 황
07_ 주요안건처리현황
ㅇ 제12회 임시회(2011.10.24 ~ 10.31)
ㅇ 제13회 임시회(2011.11. 4)
12_ 시정에 관한 질문
19_ 5분자유발언
21_ 건 의 서
ㅇ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2_ 위원회 활동
25_ 의원연구단체 활동
27_ 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32_ 언론보도자료
34_ 언론사 기고문

발행일. 2012. 1.
발행처. 창원시 의회사무국
주 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홈페이지. council.changwon.go.kr
T. (055)225-5331~5

창원시의회
의장 **김 이 수**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아 110만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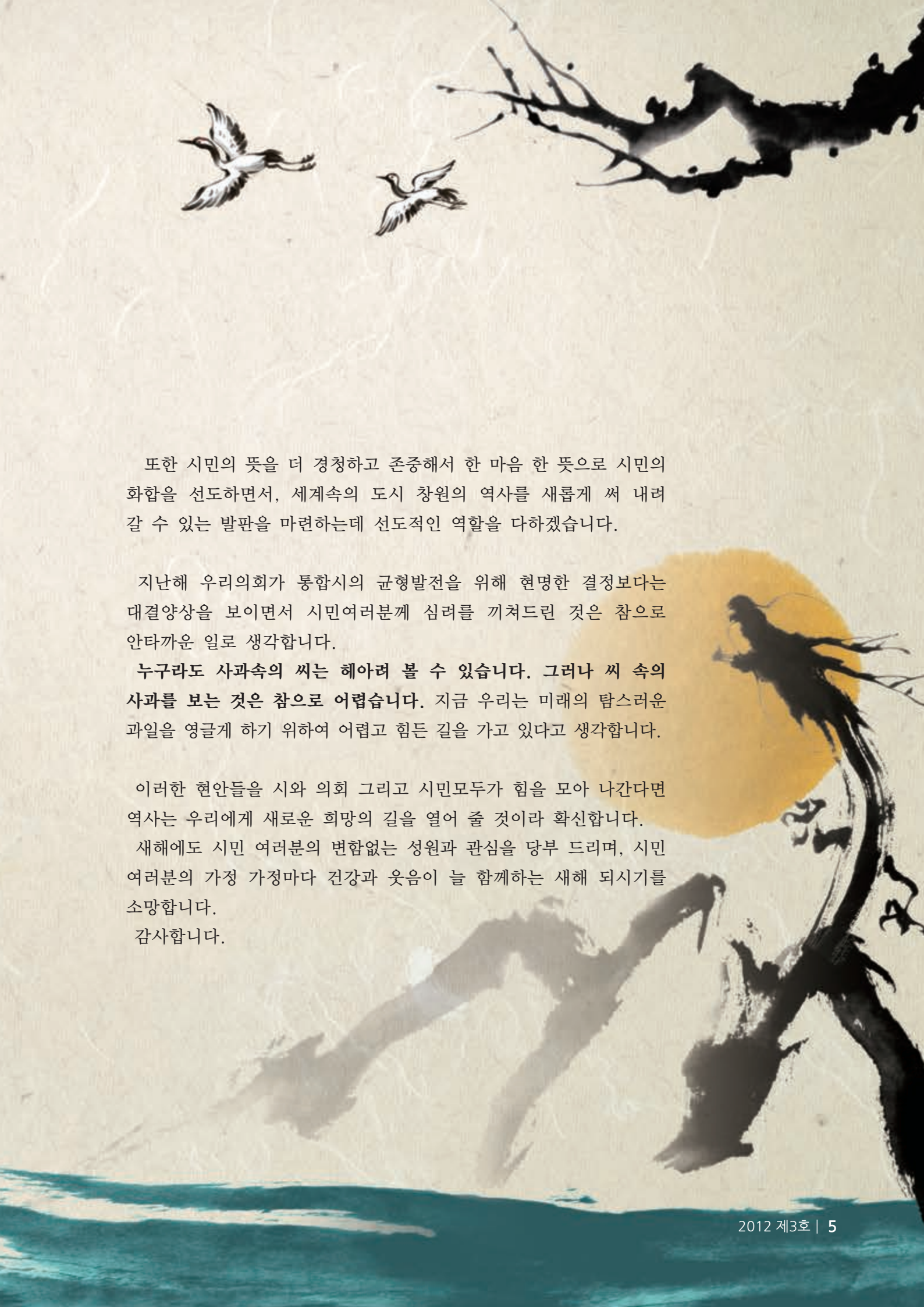
지난해는 국내 ·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우리경제도 함께 힘들었고, 실업과 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시민여러분의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데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역사적으로 임진년(壬辰年)은 나라에 큰 시련을 안겨준 해이기도 하였지만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단결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1조 달러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저력과 긍지를 바탕으로 창원시의회는 《**소통을 중시하는 의회**》《**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시민이 참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 시민모두가 비상(飛上)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뜻을 더 경청하고 존중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민의 화합을 선도하면서, 세계속의 도시 창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의회가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보다는 대결양상을 보이면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사과속의 씨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 속의 사과를 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탐스러운 과일을 영글게 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모두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하는 새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희망찬 임진년(壬辰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장 : **김이수**(구산,진동,진북,진전면),
부의장 : **유원석**(태백, 경화, 병암 석동)

의회운영위원장 : **이상인**(양덕1,2, 합성2,구암1,2,봉암동),
기획행정위원장 : **이찬호**(반송,중앙,웅남동),
균형발전위원장 : **박해영**(팔용, 명곡동),
경제복지위원장 : **이상석**(동읍,대산면),
환경문화위원장 : **강장순**(가음정, 성주동),
도시건설위원장 : **김종대**(회원1,2,석전1,2,회성,합성1동)

차형보의원(동읍, 대산면),
강영희의원(팔용, 명곡동),
이희철의원(봉림, 용지동),
강기일의원(상남, 사파동),
김석규의원(가음정, 성주동),
이명근의원(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동),
김종식의원(완월,자산,동서,성호,오동동),
황일두의원(교방,노산,합포,산호동),
조갑련의원(내서읍),
문순규의원(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조준택의원(중앙,태평,충무,여좌동),
김성일의원(이,자은,덕산,풍호동),
김하용의원(웅천, 웅동1,2동),
홍성실의원(비례대표),
김윤희의원(비례대표),
박순애의원(비례대표),

김동수의원(북면, 의창동),
방종근의원(팔용, 명곡동),
배종천의원(반송,중앙,웅남동),
김문웅의원(상남, 사파동),
여월태의원(가음정, 성주동),
이옥선의원(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동),
정광식의원(완월,자산,동서,성호,오동동),
김성준의원(내서읍),
박삼동의원(회원1,2,석전1,2,회성,합성1동),
손태화의원(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김헌일의원(태백,경화,병암,석동),
김태웅의원(이,자은,덕산,풍호동),
이성섭의원(웅천, 웅동1,2동),
심재양의원(비례대표),
심경희의원(비례대표),
이해련의원(비례대표)

장동화의원(북면, 의창동),
공창섭의원(봉림, 용지동),
정영주의원(반송,중앙,웅남동),
노창섭의원(상남, 사파동),
강용범의원(구산,진동,진북,진전면),
정쌍학의원(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동),
김순식의원(교방,노산,합포,산호동),
송순호의원(내서읍),
이형조의원(회원1,2,석전1,2,회성,합성1동),
전수명의원(중앙,태평,충무,여좌동),
정우서의원(태백,경화,병암,석동),
박철하의원(이,자은,덕산,풍호동),
장병운의원(웅천, 웅동1,2동),
최미니의원(비례대표),
조재영의원(비례대표),

http://council.changwon.go.kr

제12회 임시회
(2011. 10. 24~10.31)
8일간

제13회 임시회
(2011. 11. 4)
1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김석규, 이찬호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창원시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11. 2. 9)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일부를 일반직으로 이관하여 일반직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별정직 퇴직으로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 개발사업의 체계적, 지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풍부한 전문기술, 경영 및 사업추진 능력을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개발에 따른 수익을 시민을 위한 재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개발론 대두로 『창원도시개발공사』설립에 따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임.

▣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조갑련 · 박순애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창원시 늘푸른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강영희, 정영주, 노창섭, 차형보, 김동수, 문순규, 김석규, 이찬호, 조재영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시 최소한의 혜택을 마련하고자, 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의무화 하여 자원봉사를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통합 이후 자원봉사들에 대한 지역간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마련하고자 함.

▣ 덕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경상남도 대형공사 입찰 심의 결과 준공후 3년간 의무운전 조건과 턴키방식으로 추진토록 결정되어 2008. 9월 공사준공 이후 현재까지 의무 위탁운영 하여 왔으나 2011.12월로 의무운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각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코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석규 의원등 9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고, 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의무화 하여 자원봉사를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통합이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역간 고른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마련하고자 함.

▣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발 의 자 : 정영주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재해원인의 조사 · 분석 · 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대책 수립 등을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로봇랜드 조성지역)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 제안이유 :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로봇랜드 조성지역(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09호, 2009.12.15)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1-112호, 2011.06.20)하였으나, 경계분할 측량결과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이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0호, 2011.01.21)되어 이를 반영 체계적으로 용도지역을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창원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 제안이유 : 동부경찰서 이면도로인 소로3-31호선은 폭원6m로 개설 완료된 구간이나, 주변시설(동부경찰서, 골프연습장)이용 차량 및 도로변 상시주차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팔용공원 일부구간을 축소하여 6m에서 10m로 도로 폭원을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창원 도시관리계획(녹지,공원)결정(변경)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 제안이유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 내 경관향상 및 공해차단을 위하여 결정된 경관녹지를 경관보호는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창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 제안이유 : 우리시 진해구 덕산동 58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내 기 조성되어있던 파크골프장(9홀)부지가 해군부지의 대토로 인하여 이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진해구 장천동 산1-300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신설코자 하는 계획으로 도시의 확산과 인구집중으로 악화되는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기존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창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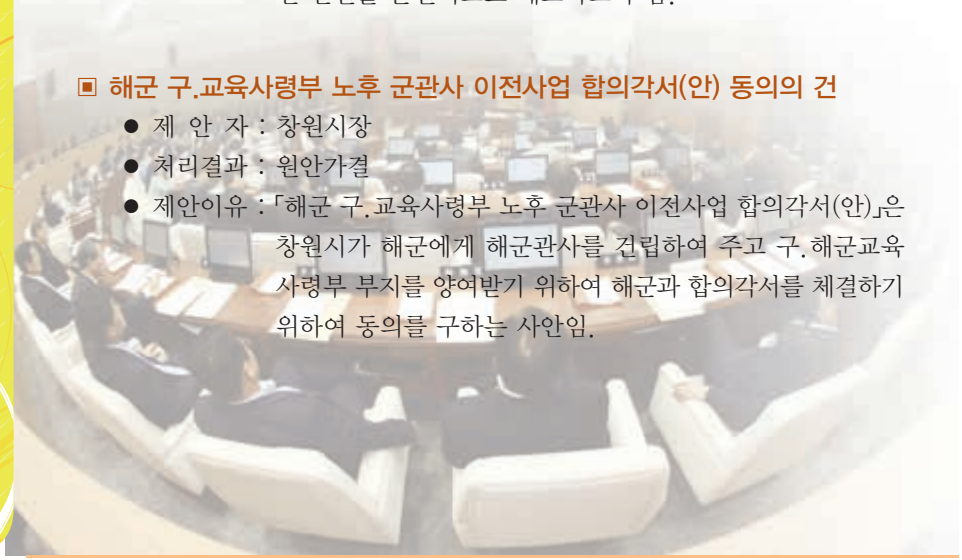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 제안이유 : 2009년 3월 4일(창고 제16호) 우리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780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축조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하였으나 2009년 8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금회기 결정된 공공청사의 일부 구역을 문화공원으로 결정(변경) 추진코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지귀 도시자연공원구역)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 제안이유 : 우리시 의창구 봉림동 산27-1번지 일원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지정 되어 이중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법령의 지침 개정에 따라 주민편익차원에서 용도 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함으로써 중복지정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 해군 구.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해군 구.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안)」은 창원시가 해군에게 해군관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해군교육사령부 부지를 양여받기 위하여 해군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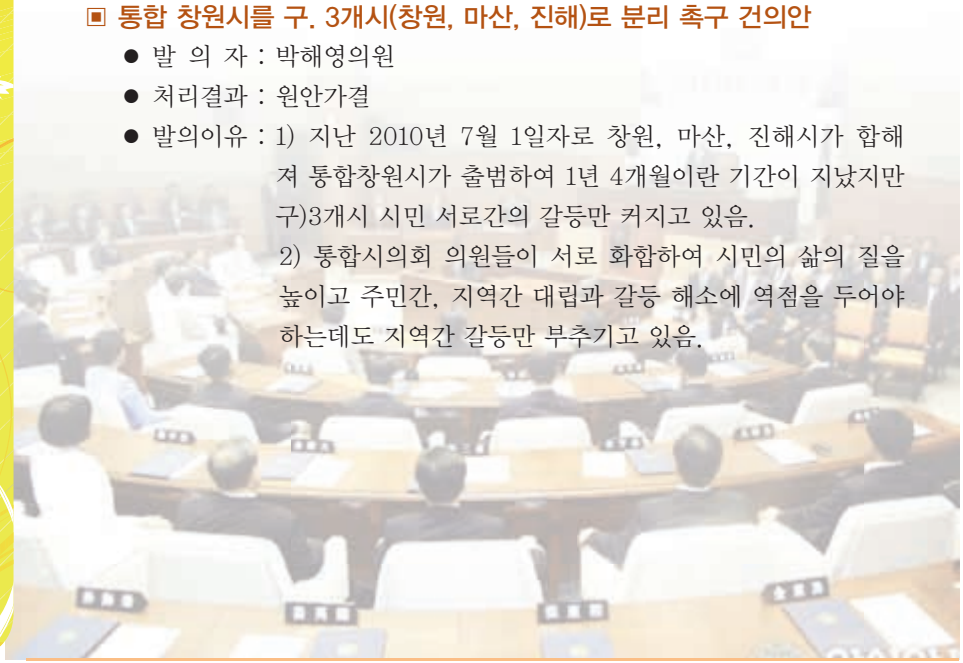
- 발 의 자 : 황일두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1) 창마진 3개시의 통합의 당위성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후속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서 창원중심의 흡수통합이라며 마산과 진해지역에서 통합 무용론과 원상복구론까지 제기되고 있음.
  2) 청사 소재지의 조기 확정만이 창마진 3개지역 주민들을 화학적으로 통합하는 지름길이자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110만 시민을 위해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것임.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정쌍학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부마민주항쟁은 이 땅에 민주화의 길을 연 자랑스러운 역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부마항쟁의 전면적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뿐이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두 개의 부마항쟁관련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것임.

▣ 통합 창원시를 구. 3개시(창원, 마산, 진해)로 분리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박해영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발의이유 : 1) 지난 2010년 7월 1일자로 창원, 마산, 진해시가 합해져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여 1년 4개월이란 기간이 지났지만 구)3개시 시민 서로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음.
  2) 통합시의회 의원들이 서로 화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음.



제12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10. 27(목), 14:00~

문 순 규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과 회원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Q 통합시 청사소재지를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과 통합의 정신에 맞게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구.육군대학부지, 두곳중 한곳에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A 통합시 청사소재지 최종결정권이 의회에 있다. 통합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로 시청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시의 미래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장의 개인의견보다는 시민의 의견, 시의회의 전체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통합시 청사문제가 선 결정된 이후에 야구장이나 통합상징물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A 청사결정시기는 최종결정권이 있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으면 시장도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Q 마산회원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밝혀주기 바람.

A 부지선정 등 별도 검증을 거쳐서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시일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김 동 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신규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Q 도시개발공사는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로 수익성과 더불어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치적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 공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화 되고 지방재정도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공사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임명하고 있으므로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공사사장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사업, 치적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한 다는 것은 맞지 않다

Q 신규야구장 건립에 따른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의뢰절차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국비,도비지원은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A 현재 기본방향 연구와 위치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올 12월에 용역결과가 나면 내년1~4월까지 투자심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에 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국비는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그자료를 가지고 요청할 예정이며 도비는 200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되어 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철 하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구. 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와 관련하여

Q 구. 진해화학의 토양정화 추진과정과 폐석고 처리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람?

A 2007년 토양정밀조사결과 오염토양이 20만2천입방미터고 폐석고 양이 78만입방미터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치 않아 지난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정화기간을 1년 연장했다. 현재 부지현장에 토양 세척 시설과 폐석고 처리 정제시설을 설치완료하여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다.

Q 주식회사 부영이 제시한 정화계획서에 의하면 폐석고처리를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인가?

A 구. 진해화학부지 현장에 폐석고를 정제하는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데 정제방식은 습식으로 폐석고를 정제하는 방식이며, 정제시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중금속하고 재생할수 있는 재생석고로 분리된다고 한다.
재생석고는 시멘트회사 원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제14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12. 9(목), 10:00~

여 월 태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창원시 영유아 보육의 미래방향과 발전에 대하여

Q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개선 용역을 하게된 사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A 강영희의원의 5분발언과 조갑련의원의 시정질문 그리고 3개시 통합으로 3개권역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가 상이하여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Q 어린이집 직영과 민간위탁 장,단점은?

A 위탁은 인력과 기술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장점이 있는반면 운영이 약화되고 수탁자가 과열경쟁할 우려가 있으며 직영은 시설운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종사자의 신분이 안정되는 반면 소극적 시설운영과 환경변화에 비탄력적으로 운영 될 소지가 있다.

Q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 개선 용역의 사유와 목적, 그리고 보육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A 통합으로 3개권역의 상이한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역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최적의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육청소년과 신설이 들어있다.

조 갑 련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용역이후 시립보육시설 이용 계획에 대하여

Q 직영보육시설의 보육료 기타 경비는 창원시장의 명의로 징수되어 입금되고 지출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린이집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 · 세출로 집행하고 있다

Q 직영과 위탁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보육료 및 기타경비, 즉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의 다른점은?

A 직영이나 위탁이나 차이는 없다. 종사자의 채용, 퇴직금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간 이런부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Q 지난 5월18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운영체계 단일화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통합으로 어린이집이 직영과 위탁이 혼재되어 있으니 그 장 · 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질 높은 보육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일화 하자고 강조했던 것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립보육 체계를 일원화 하여 법규에 맞게 운영할 계획인가?

A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는 물론 보육아동의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시립어린이 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동 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도 및 2012년도 지역별 사업예산편성 현황과 한미 FTA와 관련하여

Q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시의 세출예산편성은 통합 당시의 예산비율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11년도 공통예산 1,250억원이 지역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2012년도 공통예산1,679억원도 지역별로 세출예산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2011년 세출예산은 공통예산을 지역별로 나누고 사업예산을 더하여 지역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한다.
2012년 예산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준수하라고 하는데 공통예산은 수해나, 산사태 등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생겨 긴급투자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창원 건설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주시면 좋겠다.

Q 한미FTA는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시에서 이에 대비한 FTA대책팀이 있어야 하고 농업기반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우리시에서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수모노레일시설, 축산시설현대화 등 30개 사업에 257억원을 투입했고 2012년에는 27개사업에 1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김 성 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Q 중기지방계획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가 2011년도보다 무려 1,966억 8,400만원 즉 마이너스 7.9% 적게 계상한 이유는?

A 2012년도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에 시운학부부지, 감계동전지구부지 등의 매각으로 세외수입이 축소 반영되어 그렇다. 향후 발전지향적인 중기지방계획이 되도록 수립하겠다.

Q 500억 이상 사업을 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한 결과 사업기간이 계획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다. 계획된 사업들을 재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조달계획과 함께 다시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A 중기재정계획은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 연동계획이다. 따라서 예산배분과 실행예산간 성과는 일치하지 않을수 있다.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수정보완해서 맞추어 나가겠다.

Q 시운학부 부지를 매각하고자 한 목적은 진해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2012년도 예산엔 50억원만 계상했는데 2014년까지 시운학부 부지에 약속한 1,300억원의 시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A 각 사업별로 군관사 건립이라든지 종합스포츠문화센라든지 이런 것이 2014년 또는 2015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김 헌 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는데 대하여

Q 상징물과 야구장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청사건립 계획이 빠져있는 이유는?

A 상징물하고 야구장은 금년도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뒤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다. 청사건립은 현재 용역중에 있어 재정수요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고 있어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면 다른 중기재정계획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Q 시운학부 군관사 건축은 구.육대부지와의 교환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이것을 진해지역의 예산배분으로 보고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일정비율 만큼 진해지역의 다른예산이 삭감되는 것인가?

A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29조를 보면 통합당시의 자치단체세입, 세출예산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군관사 건립은 진해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다.

Q 청사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다면 시장은 애초의 약속대로 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시민적 합의와 공감을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할것인지?

A 의회가 모순되지 않게 명확한 의결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당연히 존중할 것이며, 의회가 그 역할을 할수 없거나 시민갈등이 극도로 증폭되어 통합시 발전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면 시장이 역할을 하겠다

김 석 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과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하여

Q 2009년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2011년 KDI가 발표한 도시철도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중 총사업비가 무려 3,842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A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선축소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가 감소, 부가가치세, 차량구입비 등 일부가 과다 상정되었거나 적용기준이 차이가 난 것 같다.

Q 내년에 우리시가 법령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최소한 노면 전차와 바이모달트램 2개다 수요, 편의, 비용, 경제성분석, 채무성분석, 노선까지 전체다 조사해줄 의향은?

A 신중히 검토하겠다.

Q 2020년, 21년 신교통수단 도입에 맞춰서 버스감차 등 여러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버스운영을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시행할 의향은?

A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개 도시의 사례를 볼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그런점에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전환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송 순 호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창원시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Q 무상급식비 지원을 다른 시,군처럼 40%를 우선 반영시킨 이후에 경남도와 협상을 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생각은?

A 시,군에서 부담하는 복지재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도시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20%가 안되면 우리가 20%하고 도가 40%가 안되면 같은비율이라도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도에서는 여태까지 의견제시가 없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보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상급식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Q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58억원을 의회에서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때 동의의사는?

A 결의가 되고나면 판단하겠다.

Q 청사조기확정촉구결의안은 연내 결정하자는 것으로 타당성용역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용역과 관련해서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다, 용역결과를 보고하라면 언제라도 보고드리겠다.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공공청사의 청소용역과 빈집정비사업 및 학교내 급수시설과 관련하여

Q 우리시 공공청사 청소용역 계약시 하나의 기준이나 원칙없이 무원칙하게 계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A 공공청사의 사용목적, 이용빈도, 방문객, 노후 등 다양하게 분류됨에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균형적인 수준이 유지될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Q 우리시에 약 2,820가구 정도의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그 가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은?

A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Q 빈집정비사업시 세제혜택을 줄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한가구 정비당 3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골목길등 열악한 지역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겠으며, 균일하게 지급하는 300만원은 건물규모별, 여건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Q 학교내 급수시설이 열악한데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교육경비중에 일부분을 이런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A 교육지청과 협의하여 이런분야에 예산이 좀더 많이 쓰일수 있도록 하겠다.

Q&A

박 삼 동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Q 행정자족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위해 입안,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조회까지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척결과는 미미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족형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제적인 계획은?

A 자족형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위해 도에 계속 촉구를 했다.
지난11월25일 도정질문시 도지사가 내년 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때 도가 하겠다고 판단이 서면 우리시가 맡고있는 의무를 실천하겠다.

Q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대하여 도지사가 내년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나서 타협을 할 의향은?

A 도지사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다. 도에서 내년 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도의 결론을 보고 판단하겠다.

최 미 니 의원

2012년 예산편성에 대한 제언 (2011. 10. 24)

예산은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시정에 반영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2012년 예산편성시에는 창원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과 무상급식관련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 주기 바라며, 낭비성, 선심성 예산인 축제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주시기 바람.

강 영 희 의원

한미 FTA저지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안을 반대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제출할 것을 촉구 (2011. 10. 24)

창원시는 하루빨리 한미FTA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하며, 창원시 전체의 교역현황, 산업별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각 분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분야 업별로 대책과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임.
그리고 창원시와 시의회는 우리지역의 농민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FTA저지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반대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

강 기 일 의원

통합시 청사소재지 결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2011. 10. 24)

통합이후 지금까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망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청사소재지 결정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옛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청사소재지와 신규야구장, 상징물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균형발전에 맞게 각 1개씩 설치될수 있도록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바람.

노 창 섭 의원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에 대하여 (2011. 10. 24)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은 국제경기의 불안과 부동산시장의 침체, 인구정체로 인한 장기적 수요미달, 개발공사의 경영, 재정상의 부실우려,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정책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합창원시의 모습을 구상하여 주기 바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중단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김 석 규 의원

창원시는 "도시계획 독재도시" 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2011. 10. 24)

통합전 창원시는 계획도시라는 명분아래 도시를 관리해 오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계획도시라는 허울을 덮어씌워 관리해온 창원시의 도시관리계획은 5년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 및 정비가 되었다고 하나, 관련법령보다는 창원시지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창원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을 법령과 조례의 위임범위 내에서 새로이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5분 자유발언

김 하 용 의원

통합 1년4개월 후 진해구의 현실에 대해 (2011. 10. 24)

진해지역의 민심은 더 이상 창원시에 더부살이 하는 것보다 진해시를 되찾아 진해시민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통합전에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고 온갖 부작용만 속출하는 강제통합을 원천무효화 시키고 진해시를 되찾아야 한다. 정부와 경남도, 통합창원시는 강제통합을 원천무효화하고 진해시민의 염원대로 옛날의 진해시로 돌려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며 국회의원은 통합특별법을 만들었듯이 분리하는 특별법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 상 인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굴뚝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강구를 촉구하며..... (2011. 11. 25)

목욕탕 굴뚝은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폐업이나 사용연료변경의 이유로 용도폐기 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203개의 굴뚝에 대해서 철거계획이나 안전점검계획, 관리계획이 전무하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심 경 희 의원

장난감 도서관 시설 확대에 대하여 (2011. 11. 25)

창원시 아이세상 장남감 도서관이 진해구에 문을 열어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장난감 도서관이 지역마다 설치할 필요성이 많지만 7만3천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엄마와 아이가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주기 바란다. 또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우리지역 생산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국화차를 손님접대에 이용하여 주기 바란다.

방 종 근 의원

구. 창원시 원주민의 희생 (2011. 11. 25)

용역결과를 보고 차근차근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음에도 무엇이 급해서 의회가 이토록 우스운 꼴이 되어야 하는지, 창원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창원발전을 위해 희생한 원주민의 가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두번 다시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청사위치 선정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용역결과를 참고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위치선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 수 명 의원

이충무공 안골포 해전 기념관 및 기념비 건립에 대하여 (2011. 11. 25)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이 땅위에서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골포해전기념관과 승첩 기념비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와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안골포해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 문화행사, 안골포해전공원 조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민주 성지 마산(통합창원시)은 이 땅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에서 조국을 구한 위대한 고장이다. 이승만 독재체제를 무너뜨린 3.15의거가 그러했고 종신 집권을 획책했던 유신정권을 종식시킨 부마항쟁이 그러하였다. 이처럼 3.15의거는 물론이고, 부마항쟁 또한 침묵과 굴종을 거부하고 독재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민주화 운동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부마항쟁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1,500여명이 넘는 연행 구금자를 포함하여 100여명이 기소된 대규모 항쟁을 국가는 지금까지 은폐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4대 민주 항쟁이라고 일컫는 3.15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중 다른 모든 항쟁이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자리매김을 하였지만, 유일하게 부마민주항쟁 만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다.

이제라도 부마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역사 속에서 부활시켜야 한다. 부마항쟁은 단순히 수많은 과거사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군사 정변에 의해 파괴되고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역사적 사건이다.

따라서 국가는 부마항쟁의 전면적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해야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뿐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마항쟁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공식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구가 전면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마산의 이주영 국회의원과 부산의 조경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부마항쟁 관련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 창원시 의회는 부마항쟁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의원 모두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마항쟁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야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부마항쟁특별법과 관련한 필요한 행 · 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정립하고 이를 후대에 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또한, 여야는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1. 11. 4.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기간을 10. 24 ~ 10. 31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난 10월 21에는 관내 주요사업장 현황파악을 위해 전의원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자연보호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어 지난 11월 14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기간을 11.25 ~ 12.20까지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6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12년도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 이어 12월 16일 개의된 제2차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과 위원회 안건으로 발의된 창원시의회회의규칙은 원안가결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1, 2차위원회를 열어 심도있게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

▷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경주일원에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12건의 조례안과 각1건의 관리계획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대상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6일에는 안민터널내 자전거도로 개설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부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제시하였다.

▷ 이어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의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12일에는 가포신항 및 부두축조공사 현장 등 9개의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공사 진척사항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제복지위원회

▷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석)는 지난 10월 7일 수산물 유통과 운영실태 우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흥군 수산물 유통센터를 비교방문 하였다.

▷ 이어 10월26일에는 제1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통영일원에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2012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19일에는 해양솔라파크 공사현장과 마산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현지 견학을 실시하였다.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환경문화위원회

▷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강장순)는 지난 10월 18일 NC다이노스 프로야구 선수단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강진 베이스볼 파크를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하였다.

▷ 이어 10월26일에는 제1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여 덕동하수 슬러지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 계획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지난 11월 8일에는 지역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진해화학터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목포일원에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조례 운영조례안 등5건의 조례안을심사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지난 10월 17일 도시생태하천운영과 산업단지조성 우수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동래온천천 현장사무실과 대포항개발사업소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다.

▷ 아어 지난 제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의견제시의건, 1건의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 지난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부안일원에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2012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12월 12일에는 주요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 육대부지등 3개지역을 방문하였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활/동

좋은조례 연구회

▣ **대표위원** : 정영주의원

▣ **참여의원** : 김석규, 노창섭, 차형보, 김동수, 문순규, 강영희, 이찬호, 조재영의원

▣ **연구활동내역**

⊙ 3. 21 :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건의 조례 제정 검토

⊙ 5. 2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검토를 위한 타 자치단체 견학계획 논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 제정 검토 등

⊙ 8. 22 : 의원발의 조례안 내용 검토(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 등), 하반기 견학 및 세미나 개최 논의 등

⊙ 9. 19 : 자원봉사자 주차장 감면혜택 관련조례, 장애인 인권조례 등 검토

⊙ 10.24 : 창원시 · 전주시 의회 조례연구회 합동토론회 개최, 선진지 견학계획 등 논의

⊙ 11. 1 :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 전주시의회조례연구회 합동토론회 개최

– 창원시의회, 전주시의회 우수조례 발제(각 2건)

– 발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의

▣ **연구활동 결과**

⊙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조례 발굴, 제 · 개정 정비

⊙ 지방의회 유사 의원연구단체간 연합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정보공유 및 시민생활 편익을 위한 조례 비교 연찬

⊙ 창원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 제,개정

지역현안 연구회

▣ **대표위원** : 김하용의원

▣ **참여의원** : 김종대, 정우서, 이해련, 김성준, 배종천, 여월태, 이옥선, 이형조의원

▣ **연구활동내역**

⊙ 3. 3 : 지역연구회 연구과제논의

⊙ 3. 21 : 지역별 통합청사 관련 의견 및 자료수집 방안 논의, 청사를 기능면으로 분리하는 방안 연구(사업소 기능별 지역분할),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 10. 10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현황 설명 청취 및 발전방향 논의 등

▣ **연구활동결과**

⊙ 통합청사, 야구장 등 각종 현안문제 논의

⊙ 마산자유무역지역 리모델링사업 등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 등

⊙ 창원시 도시건축 발전 토론회 개최 등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활/동

복지시설 개선 연구회

▣ **대표위원** : 강기일의원

▣ **참여의원** : 박순애, 홍성실, 김윤희, 이희철, 유원석, 심경희, 심재양, 장병운의원

▣ 연구활동내역

⊙ 2. 24 : 복지시설 현황 파악 및 구청별 시설방문계획협의

⊙ 4. 12 : 복지시설개선연구회 연구방향모색, 지방의회 의원 국회연수결과 평가, 복지시설별 현장방문 계획 논의

⊙ 5. 3 : 복지시설 현장방문(장애인 무료급식소, 장애인재활작업장, 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 건립현장)

⊙ 6. 17 : 전문가 초청강의

– 허순철교수(경남대 법학부) :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하춘광교수(경남대 사회복지부) : 노인복지관(회관)의 개선방향

– 오정옥교수(창원문성대학 장례복지과) : 장사문화와 창원시 장사 정책방향

⊙ 8. 31 : 장애인복지시설 견학논의,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제도와 문제점 지적에 따른 조례안 발의검토, 노인복지시설에 시스템화된 운동기구 및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논의

⊙ 9. 27 : 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건립현장, 장애인작업장, 동성산기 방문

▣ **연구활동결과**

⊙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등으로 복지 마인드 향상

⊙ 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기구 생산업체를 방문 애로사항 및 복지시책 등 개선방안 강구

⊙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

도시계획 연구회

▣ **대표위원** : 손태화의원

▣ **참여의원** : 김헌일, 이성섭, 박철하, 공창섭, 최미니, 박삼동, 송순호, 정쌍학, 조갑련의원

▣ **연구활동내역**

⊙ 5. 11 : 전문가 초청 강의

– 정삼석교수(창신대 부동산학과) : 통합 창원시 도시계획 문제점 도출과 도시계획 발전 모델과 개선방안, 향후 도시계획 과제 등

⊙ 6. 14 : 전문가 초청 강의

– 정상철교수(창신대 부동산학과) : 재개발, 재건축 추진절차 및 창원시 재건축 추진 현황과 재개발에 대한 국내 · 외 선진사례, 창원시 재개발, 재건축 과제 및 발전방향 등

⊙ 10. 24 : 입법예고중인 도시계획조례 및 주차장 관리조례 내용청취 및 검토

▣ **연구활동결과**

⊙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등으로 의원들의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관련 지식 습득

⊙ 입법예고중인 도시계획조례 심층 분석으로 조례입법취지 및 이해, 개선방향 등 검토

⊙ 도시계획 통합조례 제정에 대한 시정질문 및 발전방향 제시 등

김이수의장 경남기관축구대회 축사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이 10월8일 개최한 경남은행장기 경남기관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총회 환송만찬

지난 10월20일 개최한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총회 환송만찬에서 김이수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1 창원페스티벌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2011 창원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1 세계아동문학 축전

창원시 의회 김이수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10월 27일 세계아동문학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창원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격려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이 10월 25일 개최된 2011 창원시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하고 있다.

가고파 국화축제 개막식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과 의원들이 10월 28일 개최된 제11회 가고파국화축제 개막식에서 개막축하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유원석 부의장 창원대 평생교육원 특강

창원시의회 유원석부의장이 지난 10월 20일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의원 창원시 방문

김이수의장이 의원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1일 창원시 의회를 방문한 전주시 의원들과 함께 의장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제4회 진해마라톤대회 시상

창원시 의회 유원석 부의장이 지난 11월 6일 개최한 제4회 진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자에게 행운상을 수여하고 있다.

공무원 자녀 창원시 의회 방문

지난 11월 12일 우리시 공무원 자녀들이 창원시 의회의원들의 역할과 활동사항 등을 체험하기 위해 창원시 의회를 방문하였다.

제3회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및 IAEC-UNESCO국제심포지엄 참석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이 지난 11월14일 개최된 제3회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및 IAEC-UNESCO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우수대원 표창장 수여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1회 창원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결의대회에서 김이수창원시의장이자율방범우수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제7회 명사초청 의정연찬회 개최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월 21일 한국산업기술원지방자치 연구소 서우선소장을 초빙하여 지방자치법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마산로봇랜드 기공식

김이수창원시의회의장과 의원들이 지난12월 1일 개최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기공식 참석하였다.

제4회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개막식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지난 12월 2일 개최된 제4회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철새모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다.

K-POP 월드페스티벌 시상

창원시 의회 유원석 부의장이 지난 12월 7일 개최한 K-POP월드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참가 우수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내주요사업장 현지방문 및 자연보호 행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지난 10월21일 전의원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내주요사업장 현지방문과 자연보호 행사를 실시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 실시

지난 11월 7일 이상인 의회운영위원장과 위원들이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 전남구례군을 방문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 방문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1월28일 창원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양촌권역활성화센터 부지방문

지난 11월29일 이찬호위원장과 위원들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처리하기 양촌권역활성화센터 부지매입현장을 방문하였다.

균형발전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 실시

박해영균형발전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막여과정수시설견학을 위하여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균형발전위원회 공사현장 및 주요사업장 방문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2월12일 가포신항공사현장 등 9개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경제복지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 실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0월6일 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경제복지위원회 해양솔라파크 공사현장 방문

지난 12월 19일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위원장과 의원들이 진해 해양솔라파크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로 사업현황을 듣고 있다.

환경문화위원회 NC다이노스 전지훈련장 방문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0월18일 NC다이노스 프로야구 선수단 훈련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환경문화위원회 구.진해화학부지 방문

지난 10월 26일 강장순환경문화위원장과 위원들이 구. 진해화학부지를 방문하여 토양오염 정화 시설 등을 둘러보고 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 실시

김종대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0월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생태하천,산업단지 견학을 위하여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 도시 · 건축 발전 토론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1월2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도시 · 건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결위 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원회 장동화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2월7일부터 8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결위 제2회추경안심의

지난 12월 19일 개의된 제14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동화위원장과 의원들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김이수)가 11월 25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2차 정례회는 11월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이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견 제시의 건,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1월 26일~12월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7일~8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9일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12월 11일 ~ 19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한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2조2,621억원보다 2,441억원 증가한 2조5,062억원으로 10.79% 증가한 예산이다.

김이수 창원시의회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내년도 우리시의 주요업무계획과 살림살이가 책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골고루 쓰여지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창원시 의회 지역현안연구회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현안연구회(대표의원 : 김하용) 회원 등 시의원 9명이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현장을 지난 10월10일 방문하여 관리원의 현황파악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마산자유무역지역 현황 청취 및 홍보 영상물을 관람하고, 평소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 · 토론 하였다.

연구회 회원들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들의 사업 실적 등 자료가 부족하고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문제, 기업유치 등을 질문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 방효민) 장은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겠으며 현재 운영실태를 사업체별 현장 방문하여 파악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크게 우려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현재 제1,2,3공구 재건축사업비 1,5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별 사업추진 시 지방예산이 늦게 확보되어 사업차질이 예상됨으로 예산확보에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였다.

도 선관위 주관 도내 중학생 정치현장 체험 방문

도내중학생 대표 60명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5명이 “2011 중학생 정치현장 체험 견학”을 위해 지난 10월 19일 창원시 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중학생 정치현장체험은 다양한 정치현장 체험을 통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창원, 김해, 밀양, 양산시 등 도내 중학생 대표 60명이 참석하여 의회홍보영상물과 본회의 회의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중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안”에 대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안건상정과 제안설명, 질의답변, 찬반토론을 거쳐 전자표결을 실시하였다.

이날 김이수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하여 부가 설명을 하고, 내년 4월선거에 부모나 어르신들이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줄 것을 부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지역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주기를 당부하였다.

창원시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연합 토론회 개최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 정영주)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이명연)가 의원연구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월 1일 10:00부터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합토론회를 가졌다.

지방의회의 조례연구 관련 연구단체간 주요활동들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조례입안의 접목 및 연구단체간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의원연구단체 간 상호 교류 활성화와 연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시 조례연구회 회원 14명과 창원시 좋은조례연구회 회원 9명이 모여 의미 있는 연합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입안 사례 2건,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발의 우수 조례 2건을 선정하여 발제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질문 답변, 자유토론, 향후 연구회 발전 방안 등을 토론하고 마지막 각 대표의원께서 총평을 하였다.
창원시 정영주대표의원과 전주시 이명연 회장은 총괄평가를 통해 이번 창원시 전주시 의원연구회 연합토론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회라 생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입안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명사초청 연찬회 개최

창원시 의회(의장:김이수)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3시30분 부터 의회대회의실에서 명사초청 의정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명사초청 연찬회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우선 박사를 초청하여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연찬을 실시하였다.

이날 김이수 의장은 의원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연찬회가 자신과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우리의회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여 명품도시를 창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해 련 의원

선택

요즈음이면 누구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마무리하는 시기인 것 같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이지만 올해도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었다.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책을 볼까, 영화관에 갈까?', '어디에 취직할까?'등,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매일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을 위해 고민한다. 언젠가 인생(life)은 알파벳의 b(birth)에서 d(death)라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것을 보았다. 그 순간은 그냥 스쳐 지났는데 어느날 문득 birth와 death 사이의 c를 더 올려 보게 되었다. 그래, c(chioce)란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뭔가 진리를 발견한 것 마냥 기뻤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크게는 삶이 바뀌고, 작게는 순간순간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기에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즈음은 즉흥적인 순간의 유혹에 현혹되기 쉬운 사회다보니 한번 더 생각하고 짚어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문구가 한 때 유행어가 되기도 한 것처럼 정말 매사 신중히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개인의 문제든, 공적인 문제이든 선택 후엔 책임이 늘 함께하고 있음 또한 우린 잊어서는 안된다. 현명한 판단과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인생의 긴 이야기가 만들어져간다. 자신의 인생항로를 어떤 길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올바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아 가야 할 것이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매사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모나지 않고 둥둘게 어두운 곳을 밝히는 아침의 햇님처럼 하루일 다하고 서서히 서산으로 사라지는 저녁의 석양처럼 살리라고 다짐하면서 이 저물어 가는 한 해 마무리의 여유를 부려본다.

다시뛰는 창원을 위하여

조 준 택 의원

몹시 화가 나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때면 진혜림의 노래 'Lover's concerto'를 듣곤 한다. 홍콩 영화 '친니친니'에서 여주인공인 그녀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수줍은 듯이 부르는 이 노래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만큼이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느낌이다. 그리고 몹시 긴장되는 순간에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긴장을 풀어 보기도 한다.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은 고향의 품에 안긴 듯한 따뜻함을 주고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피아졸라가 작곡한 탱고들은 심신의 피곤함을 날려 보낸다. 이렇게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들은 많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느낌도 다르고 감동의 깊이도 다를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 침체 된 미국사회를 다시 뛰게 만든 노래가 있었다.

192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으로 댄버 댐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면 많은 노동자들이 재즈 바에 몰려 한 잔의 위스키와 술집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어면서 피로를 풀었다고 한다. 불황의 긴 터널 속에서 경제 재건의 신호탄과 같은 음악이 있었다. 재즈 음악 작곡가 베니 굿맨을 필두로 한 스윙재즈의 열풍이 그것이다. '스윙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니 굿맨은 수많은 재즈곡을 남겼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가 'Sing Sing Sing'이다. 언젠가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에어컨 광고에서 불렀던 바로 그 곡이다. 당시 노동자들이 모인 술집에서는 어김없이 이 노래가 흘러 나왔다고 한다. 대공황을 벗어나는 밝아진 사회 분위기를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소위 스윙재즈의 열풍이 시작된 것이다. 대공항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스윙재즈는 내일의 희망을 떠 올리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1930년 초, 미국 경제는 어두운 긴 터널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게 된다. 사람들은 희망을 찾게 되고 미국사회를 다시 뛰게 만든 것은 밝고 경쾌한 스윙재즈 'Sing Sing Sing'의 열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집단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통합 창원시에는 2개의 시립교향악단과 3개의 시립합창단이 있다. 110만 인구와 서울시보다 넓은 747Km$_2$ 면적을 보유한 거대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연간 각 100회가 넘는 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통합이 되니 참 좋구나." 시민들의 얘기를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처음 들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예술단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예술단 통합이 단순히 교향악단, 합창단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현저히 감소될까 우려된다. 문화를 사랑하는 마인드로 예술단이 통합되어 더 많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뛰는 통합 창원을 만드는 촉매가 되어 과거 미국에서처럼 우리들의 'Sing Sing Sing'이 우리시의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지길 기원해 본다.

방 종 근 의원

학력(學歷)과 학력(學力)

최근 정부와 대기업들이 신규공무원이나 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학력 차별 없는 열린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굳이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여겨지며 지금까지는 차별을 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력(學歷)은 외형적인 명목상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학력(學力)은 내면적인 실력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신분상의 서열의식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기에 사회적 서열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지배적인 요인이 됐고 어떤 외국에 비해 그 비중이 유별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출발점부터 대학을 나왔느냐, 나왔으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장래의 희망과 진로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어림으로나마 결정지어지는 그런 사회인 것이다. 반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출발점부터 뒤처지는 신분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평등한 자유 개방 사회는 학력(學歷)경쟁, 수험 경쟁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학교 경쟁이 곧 사회서열경쟁, 생존경쟁화가 되어버렸다. 험난한 경쟁은 대학 입시 경쟁으로 시작되며 여기에서 이기는 기술이 인생의 최고 가치관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그 많은 시간을 학력(學力)을 위한 공부가 아닌 경쟁에서 이겨내는 공부에만 치중하고 학생들은 학교공부를 바로 시험공부로 오인하고 있을 정도다. 시험공부는 하나의 수단 공부에 불과하고 창의력이나 정서력을 풍부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며 청소년 내면의 발전을 위한 목적인 학력(學力)을 외면하고 인생을 풍요하게 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인간을 양성하는 공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우등생은 전 과목을 모두 잘해야 하는 팔방미인형이 되어야 한다. 서양의 우등생은 이런 종합적인 우등상은 없고 과목별 우등상이 있으며 용기상, 선행상, 봉사상 등 학생의 자질과 개성을 발굴해 시상하는 일방미인형을 장려한다. 이처럼 서양에는 전문성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을 육성한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재능이나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발상력, 구상력, 창의력, 조화력 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이 아닌가 싶다.

평등한 개방사회의 장점을 살리려면 학력(學歷)보다 학력(學力)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실력과 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력(學歷) 인플레가 많은 사회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도 사회 적응뿐 아니라 취업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취업하더라도 당장 써먹을 수도 없다. 이처럼 우리는 실리적인 교육이 아닌 낭비적인 교육만을 해왔다. 학력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젊은이들은 학력(學歷)이 아닌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도 건강하고 자신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긍정적인 변화가 한때의 시류에 그치지 않고 성숙한 사회, 교육, 문화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88만원 세대에서 100만원 세대로

노 창 섭 의원

2007년 우석훈씨가 쓴 책 '88만원 세대'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을 때 평균 88만원 전후의 월급밖에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 현상을 다룬 책이다.

당시 이 책은 청년들에게 큰 공감을 받아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의 모순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IMF사태 이후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발생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시행해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해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1일부로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 영세 사업장 등 1인 이상 모든 기업에서 적용받게 되며 수혜 대상 노동자는 230만명에 이르며 가족을 포함하면 5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랫목만 따뜻하고 윗목에 냉기가 흐르는 방을 윗목에 최소한의 온기는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 당시 88만원에서 100만원 전후로 약간의 월급은 올랐지만 사회 양극화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한편으로는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 한 해도 마무리돼 가는 12월 중순이다. 각 기업과 공공 기관 등 각종 단체에서 송년회를 개최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트리가 불빛을 반짝이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가족과 어렵게 생활하는 시민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과 성탄절을 앞두고 내년도 가정 살림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고 한 달 임금이 100만원 전후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기업과 기관이 있다.

새해에는 창원시에 있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에서 최소한 최저임금법은 지키자는 결의를 다지는 송년회를 기대하는 것은 나의 작은 희망에 불과할까?

강 용 범 의원

진짜 원조(元祖) 싸움

한국인처럼 원조(元祖)를 따지고 집착을 하는 민족도 드물다. 우리 마산의 아구찜 거리를 가보면 어느 집이 진짜 '오동동 초가집'인지 진짜 '할매집'인지 서로 앞다퉈 간판을 내걸고 자기들이 모두 원조(元祖)인양 고객들을 헷갈리게 한다. 족발집이 밀집해 있는 서울 장충동 일대에 가보면 온통 원조 간판이다. '원조', 'TV에 나온 맛집 1호집' 등 저마다 원조임을 강조한다. 전국의 유명하다고 하는 음식점 가운데 '욕쟁이집', '할매집'이란 옥호(屋號)가 범람하고 있는 것도 원조 논쟁이나 다름없다. '욕 잘하는 할머니'가 그렇게 많다는 것일까?

지난해 제주도에 있는 마라도를 가본 적이 있다.TV광고에서 나온 장면에 바다 한가운데서 한 개그맨이 '자장면 시킨신 분'이란 광고를 보고 마라도 섬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장면 집을 열어 놓고 있는 두 집이 있었는데 간판을 유심히 보니 한 집에서 '진짜 원조 자장면'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조그마한 섬에서도 두 집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원조는 어디가도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최근들어 원조 논쟁은 아예 동네 규모에서 지자체 규모로 발전했다. '대게'를 둘러싼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의 자존심 대결, 청마(靑馬) 유치환 시인의 출생지에 대한 통영시와 거제시의 법정논쟁, 설화 '별주부전', 논개의 출생지에 대한 진주시와 장수군의 논쟁, 소싸움을 놓고 진주시와 의령군의 논쟁, 대구 동구청과 경북 경산시는 팔공산 갓바위를 두고 30년 넘게 신경전을 벌여왔다.

갓바위의 불상은 보물로 지정된 후 참배객이 늘자 법정 다툼 끝에 소유권은 경산의 한 사찰에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힘입어 경산시가 1998년부터 '갓바위 축제'를 열자 대구 동구청은 이듬해에 '바위'의 사투리 방구를 쓴 '갓방구 축제'를 시작했다. 분쟁은 캐릭터 사업을 둘러싼 상표권 싸움으로 번졌다고 한다.
이렇게 지자체들의 '원조'나 고향 다툼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상상력 경연장 같다. 심청, 홍길동, 별주부, 변강쇠(고대소설 주인공), 논개, 신채호(역사인물), 유치환(문인), 해맞이 반딧물(천연자원), 대게, 육쪽마늘(농축산물), 심지어 눈병이 나았다는 약수터가 자기네 것이라고 싸운다. 콩쥐와 팥쥐가 살던 마을을 놓고 두 지자체가 맞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불과 500m 떨어진 두 마을의 우의가 깨질까 걱정스럽다. 음식점들도 원조니 상표권이니 하면서 엄청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싸우는 세상이다.
지자체 원조싸움도 결국엔 역사와 자원을 내건 축제와 기념시설들의 돈벌이 다툼이다. 대표성을 공인 받으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익산과 충남 부여는 향가(鄕歌) '서동요(書童謠)'의 주인공이라는 백제 무왕의 연고권을 놓고 맞서오다 한 방송사가 드라마 '서동요'를 준비하자 세트장 경쟁까지 벌였다. 결국 방송사는 두 곳을 오가며 찍는 웃지못할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내세울 간판상품도 창조적 상징을 짜낼 머리도 모자란 탓에 가운데 선 조상님들만 고달프기만 할 것이다.

예수의 본 고향인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의 예언자 정도로 간주되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로 자리매김되고, 불교의 참선수행 발상지인 인도는 물론 이를 크게 부흥시킨 중국을 능가해 면면히 전해진다. 공산주의 혁명의 고향은 소련이나 최대 수혜국인 중국을 능가해 북한에서 가장 지독하고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존속하면서 공산주의 진짜 원조라고 고집할 수 있을까?
한국인의 원조의식이 거의 원리주의(原理主義)의 경지에 이르다고 해도 지나친 말일까? 옛것을 잘 가꾸고 보존하며 전통적인 요리의 그 맥을 잘 이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남이 하던 것을 따라하면 서로 죽는 꼴이 되고 만다. 원조(元祖)도 중요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지자체간의 원조 갈등이 후덕하고 인심좋은 이웃간에 우의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간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